

3. 삶을 계획하기

최근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써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록해 봅시다.

★ 나의 문제: _____

★ 해결 방안: _____

4.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온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온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매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 26:22]

온유한 자가 사는 법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84장
- 성경읽기 : 창 26:12-22 (구약 34면)
- 말씀나눔 : 온유한 자가 사는 법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블레셋 그랄에 살게 된 이삭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모두 메워 버립니다(12-15절). 물이 생존의 필수조건이었던 그랄 땅은 우물을 두고 분쟁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기근인 상황에서(1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큰 갈등을 우려했는지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16절).

하지만 이삭은 그대로 떠나 골짜기에 정착하여(17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18-19절). 성경은 이삭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그는 억울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해 온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게 의해 에섹, 싯나라는 우물 2개를 뺏깁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우물을 묵묵히 팅니다(20-21절). 마지막으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이삭은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다며 번성을 소망합니다(22절).

온유는 원통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참아내는 성품입니다. 이삭은 맞서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비멜렉에게 호소하지도 않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약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고백(22절)을 통해 적어도 이삭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이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장면(24절)과 아비멜렉이 이를 확신한 장면이 등장합니다(29절).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마 5:5),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하여 이 땅에서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1. 말씀 관찰

1) 이삭이 농사로 백배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15절)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우물을 훔으로 메웠습니다.

이삭은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자 그해에 백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12절). 그러자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 이삭이 판 우물을 훔으로 메우고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어도 화가 나는데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진다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이삭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고 다룰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분쟁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내면의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얻은 부유함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았습니다(12절).

2) 계속되는 주변의 공격에도 이삭이 온유하게 대처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8절)

주변의 인정을 받고, 이삭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분쟁이 있었던 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섹'입니다. 이는 '불공평하게 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싯나'입니다. 뜻은 '원수같이 웅크리고 있다'입니다. 즉 이삭도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뜻은 '넓다'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삭이 평화를 선택한 것은 그가 힘이 약하거나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미움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사랑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 말씀 적용

1)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분쟁의 피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온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